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리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업 유치 전략과 관련 산업의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 전북자치도 관계자, 신정동 연구기관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전에 연구소 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가사업 유치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보고회에서는 국가 RI-ADME 시스템 구축·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중장기 연계 전략의 국가 정책 반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전에 연구소 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가사업 유치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읍시는 12일 연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을 대비해 조직개편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생 회복으로 내년 대도약 꾀한다

정읍시, 주요 현안 설명... 조직 개편안 ·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읍시는 12일 연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을 대비해 조직개편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현재 4국 2직속, 30실 · 과 · 소, 280명 체제를 5국 2직속 30실 · 과 · 소, 257명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별로 5개 과를 배치해 책임 행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기존에는 국장 중심의 역할보다 팀장과 과장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국장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변화하며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 체육 ·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그간 분산 관리했던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운영 ·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예산실 내 인구정책팀과 체육진흥과에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감축 정책을 반영해 2025년 기준 정원을 9명 줄여 1244명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신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저연차 직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



정읍시는 12일 연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을 대비해 조직개편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써 조직 내 안정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도 밝혔다. 총 310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장상 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2월 28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세나 교부세 같은 기존 재원이 아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 지출 중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 사회적 구조 변화, 내수 경기 침체 등 다방면의 도전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변화이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정읍시는 더 많은 기회와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무장현 관아와 음성 경관조명 '반짝'

'제폭구민(除暴救民, 포악한 권력을 물리쳐 백성을 구한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동학농민혁명 성지 '고창군 무장현 관아와 음성(사적 346호)'에 환한 빛이 켜졌다.

고창군이 지난 11일 저녁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음성 남문(진무루) 앞 광장에서 '무장현 관아와 음성 경관조명 점등식'을 열었다.

이번 점등식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 및 군의원, 도의원, 기관 ·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장현 관아와 음성의 새로운 야간 명소 탄생을 축하했다.

하이라이트인 경관조명 점등식에서는 무장면민 등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무장현 관아와 음성이 달빛과 함께 화사한 빛으로 물들었다.

점등과 함께 기념촬영에서는 야간조명으로 더욱 아름다워진 무장현 관아와 음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특히 이번 점등식 행사는 고창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 활성화와 연계, 변화된 무장현 관아와 음성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점등식 행사에 이어 참석자들이 무장현 관아와 음성 내부의 관아건물과 관람로까지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산 정비 복원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무장현 관아와 음성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고창읍성과 더불어 고창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연말맞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캠페인

부안군은 연말을 맞아 행정, 동물 보호센터, 포획단 합동으로 부안군내 부안읍 소재 해돋마루를 비롯 매창공원 일대에서 리플릿(leaflet)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및 계도의 목적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 가슴줄(길이2m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맹견소유주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과 같은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알릴으로써 반려견 관리 부실로 인한 군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증가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군은 민원 다발 지역인 매창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장 직무실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항의 차원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12일 시장 직무실에 있던 국정지표를 떼어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항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개인 SNS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박일 의장님과 함께 제거했다"고 적었다.

그는 "현 정부는 국정 운영 목표 중 어느 것 하나 실천하려 노력한 흔적도, 지켜진 것도 없는 무능한 정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권위를 상실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권한이 더 이상 없다"면서 "액자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



한 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으며 타 기관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액자에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

한 나라, 인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현 정부의 6대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척도, 생활인구”

김원진 부안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서



김원진의원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

을 회복할 잠재력이 크다"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생활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소비 효과를 넘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며, "부안군은 생활인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증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